



우리의 家章

靑松沈氏宗報

發行人：沈明求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heongsongsim.or.kr

十一世祖 通訓大夫 司諫院 司諫公 諱：大孚(대부)墓碣銘



▶ 사간공 휘 : 대부 묘소 용인시 내면 완장리

▶ 묘표석

공의 이름은 대부(大孚) 字는 신숙(信叔) 성은 심씨이니 그 선조인 청성백(靑城伯) 덕부(德符)로부터 비로소 성대하였다. 청성백이 안효공(安孝公) 온(溫)을 낳으니 우리 세종왕비인 소헌왕후(小憲王后)의 부친이고 공에게 六代祖가 된다. 五代를 지나 경기관찰사인 대(岱)라는 분이 있어 선조 임금을 섬기다 임진왜란을 당해 임금을 수행하여 평양으로 갔다가 경기지방을 살피라는 명을 받고 적병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임금께서 그 충렬의 원혼됨을 포상하여 영의정으로 추서하시고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을 봉(封)하였다. 부인 최씨는 우윤(右尹) 홍간의 딸이다. 아버지인 관찰사공이 죽을 당시 공의 나이 7세에 그 집상을 하는 처량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다. 점차 자람에 어머니 최부인께서 경계해 말씀하셨다.

과부의 자식은 세속에서 벗어나기를 부끄러워한다. 하니 만일 창피하게 여기거든 글을 읽고 수행을 잘하라. 공이 풀이 죽고 안색이 슬퍼하며 심중에 새겨 힘써 공부하되

성인의 글이 아니면 읽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유학하여 정한강(鄭寒岡) 선생을 뵈고 심경(心經) 한 권을 받았다. 정문숙(鄭文肅) 공이 공을 보고 현재(賢材)라고 하며 주례(周禮) 한 부를 주면서 주나라의 도를 힘써 공부하라고 말씀 하시었다.

광해군 五年 계축(癸丑:1613)년에 나이 28세로 진사 시험에 一 등으로 뽑혔는데 어머니는 늙으시고 공이 두 형들을 섬기는데 공경하여 게으르지 않았으니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기고 슬픈 일이 생기면 따라 슬퍼하며 항상 기쁜 얼굴이었다.

인조반정(仁祖反正:1623년 仁祖元年)하던 해 三月에 善行으로써 처음으로 사포서(司圃署) 별제(別提)의 벼슬을 주었으나 취임하지 아니했고 그 해 六월에 그의 형이 父母에게 잘못을 저질러 북변으로 流配당하고 불기를 맞아 상처에 구더기가 寄生하여 공이 입으로 빨았다. 걸어서 발이 몹시 불우터 머나먼 二千여 리에 수고 많았으니 사람들이 더욱 더 어질게 여기더라. 이듬해 중립역 察

訪이 되었으나 一年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하직하니 죽만 먹으며 三年 간 執喪하였다. 庚午(1630 仁祖八)년에 대군의 사부(師傅)가 되니 孝宗께서 東宮에 있을 때이다.

私的으로 師傅 대접을 함에 공이 극구(極口) 사양(辭讓)하니 이 때문에 예우가 더욱 두터웠다. 壬申(1632 仁祖十)년에 여러 번 전직(轉職)하여 형조좌랑(刑曹佐郎)이 되고 癸酉(1633 仁祖十一)년에 乙科에서 장원(壯元)으로 뽑혀 예조좌랑(禮曹佐郎)이 되고 사간원(司諫院)의 正言으로 옮겼다.

왕자 仁城君 珙이 이미 賜藥을 받아 죽고 그 셋째 아들이 섬으로 유배(流配)당했을 때 임금께서 특별히 관용(寬容)하여 석방(釋放) 하시니 양사(兩司)에서 논쟁(論爭)이 끈이지 않았다 이에 공이 主張하였다 이는 전하(殿下)의 성덕이니 예전에도 능히 이 같은 훈도(訓導)는 없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순하게는 못할지니 이 같은 논쟁(論爭)은 殿下께 報答하는 예우(禮遇)가 아닙니다.

쟁논자들이 공을 역당(逆黨)으로 지목해 보령현감(保靈縣監)으로 내쫓았으나 공이 부임하지 않았다 甲戌(一六三四 仁祖十二)년에 송화현감(松禾縣監)이 되었는데 명나라 將師 모문용(毛文龍)이 가도(椴島)를 진압(鎭壓)할 때 그 부하들이 군 읍에서 방자(放恣)하게 굴어 百姓들이 감당하지 못하니 공께서 조약(條約)을 엄중하게 맺어 횡포(橫暴)하지 못하게 하고 고을의 子弟들을 모아 禮法을 가르치고 황해도에서는 오로지 국이민복(國利民福)에 힘쓰고 민폐(民弊)를 물리치고 합리적으로 하였다.

보은(報恩)한지 두어 달만에 나라에 慶事가 있어 풀려 돌아왔다 丁丑(一六三七 仁祖十五)년에 문경 가은에 가서 눌러 살 때 그 집을 범제(泛齋)라고 하니 집이 없음을 이른 말이다. 연해서 修撰 校理로 任命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2면에 계속...>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 구 분 | 페이지 | 가 격 | 신청부수 |
|-----------------|-------|---------|------|
| 1. 대동세보 수권(속편) | 1,134 | 50,000원 | ()권 |
|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 448 | 30,000원 | ()권 |
| 3. 종보축쇄판(1-50회) | 400 | 20,000원 | ()권 |
| 4. 제향출기(휴대용) | 30 | 3,000원 | ()권 |
| 5. 종사수첩(휴대용) | 120 | 3,000원 | ()권 |
| 6. 뱃 지 | | 1,000원 | ()개 |

▶ 1, 2, 3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 파 명 | 이 름 | 집 전 화 | |
|------|-------|-------|------------|
| | | 휴 대 폰 | |
| 이 름 | | 우편번호 | |
| 송금일자 | 송 금 인 | 금 액 | 송 금 은 행 |
| | | | ()은행()지점 |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 질단위 외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 꼭 기재요함
- ◆ 송금인이 본인이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잔경외관) 청송심씨대중회
우편번호 100-310
송금구좌 농협 084-01-179314 (심명구)
TEL: 02)2267-7857, 2263-7897
FAX: 02)2269-7755

戊寅(一六三八 仁祖十五)년에 特別히 공을 평상에서 불렀다 공이 말하되 대란이후에 國政이 파괴되었으나 그 죄상을 제신에게 돌려찍우고 그 대신과 책임자는 궁중에 둘러 앉아 일즉이 성대하다고 아뢰니 그 말씀이 절실하고 강직하였으나 임금께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곧바로 물러났다 얼마 후 성균관 직장으로 다시 임명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 해 三南지방에 큰 흉년이 들었다.

대신이 임금께 고하여 삼남도사로 선임하고 기민(飢民)떡일 일을 관장케 하니 공이 천거로써 경상도사가 되었다 가을에 피해상황을 다시 살피고 작황을 측량하고 농정이 완비되지 못하였으므로 세금을 고루 편의토록 많은 보고를 올리니 임금께서 허락하셨다.

庚辰(一六四〇)년에 修撰에서 다시 헌납이 되고 왕자의 수각(水閣)일로 상조하여 아뢰었다. 비원의 나무들은 선왕께서 심으신 것인데 하루아침에 베어내고 왕자의 누각을 짓는 것은 전하께서 왕자를 사랑하심이나 선왕께는 불경이 됩니다. 임금께서 성내시어 헌납에서 체직(遞職)되었다 공이 연이어 三司와 이조에서 근무하다가 癸未(一六四三)년에 종부시 正이 되고 이어 성산 현감(星山縣監)으로 나갔는데 성문에 방문(榜文)을 써 붙이고 훈계하였다. 몸가짐을 맑고 근엄하게 하는 것과 정사를 공평하게 하는 것은 관리의 일이니 관리는 힘쓸 것이며 효우(孝友)를 돈독히 하고 약속을 지켜서 법령을 어기지 않는 것은 백성의 일이니 백성들은 힘쓸지이다. 약하고 외로운 자를 보존하고 나이 많은 이에게 물으며 매양 명절 때는 쌀밥과 고기를 먹이는 것은 예부터의 일이다. 己丑(一六四九)년에 다시 응교가 되고 시강과 필선을 겸했다 세자께서 지난날 사부로서 특이하게 예를 높이려고 하니 예를 맡은 관원이 옳지 않다고 하였으나 늘 세자께서 입시하여 반드시 예의를 갖추었다. 五月에 仁祖께서 등하(登遐)하시니 世子께서 大行의 廟號를 의논하셨다 공이 기록해 올려 아뢰었다.

『이제 대행대왕의 묘호는 祖에서 宗(宗)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선조(宣祖)께서는 광국대공(光國大功)을 두셨으니 조정신하들이 祖(祖)로 칭하고자 하였으나 윤근수(尹根壽)는 의롭지 못하다고 말했는데 뒤에 허균(許

筠)과 이이첨(李爾瞻)이 거짓 문서를 지어서 다시 祖(祖)로 칭하도록 하였으나 당시의 문헌이 없고 노성(老成)한 이들이 나라를 위하여 드린 말씀이나 윤근수 같은 이는 그것이 체계를 이어 이룬 군왕의 일이며 비록 공과 덕이 있어서 백대의 불천지묘(不遷之廟)가 되더라도 宗(宗)으로 하고 祖(祖)로 하지 말도록 하였습니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은 주세실(周世室)이 되고 한(漢)나라 문제(文帝)와 당나라의 태종(太宗)과 진(晉)나라 원제(元帝), 송(宋)나라 고종(高宗)을 다른 祖(祖)라고 칭하지 않았고 공이 있는 왕을 조로 하고 덕이 있는 왕을 종으로 하여 모두 불천의 사당을 삼았으니 宗을 祖보다 낮춘 것도 아니고 조를 宗보다 높인 것도 아닙니다. 태종과 세종과 고종과 중종을 다 종으로 칭하되, 불천위(不遷位)인즉 진실로 다 같은 것입니다. 의(義)도 아니고 예(禮)도 아닌 예를 이어서 선왕에게 조호(祖號)를 올리는 것이 다만 경도(經道)도 아니고 예에 어긋남이 큼니다. 임금께서 성을 내시고 말씀이 끝나자 기록도 보지 않고 사인(舍人)으로써 다시 사간(司諫)을 삼으니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척하고 김상헌(金尙憲)을 거명하여 말씀하셨다.

『정원(政院)에서는 나라의 원로대신에게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임금께서 꾸짖으며 말씀하시니 공이 대답하였다. 『예 군왕의 앞에서는 신하에게 이름으로 호명하는 것이어서 김상헌에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사간마저 파직 당하고 이듬해에 임금께서 묘호(廟號)건으로 죄상을 추가할 때 선왕에게 비방하였다고 공을 회양(淮陽)에 부처(付處)하였다가 간관의 말을 듣



고 곧바로 사면하였다. 병신(丙申:1656)년에 선공(先公)의 장지를 옮기고 공이 말하였다. 예에 三年간 복(腹)을 입어야 하니 移葬때도 三개월 간 시마복(總麻服)이 호곡(呼哭)하고 음식 또한 초상과 여묘(廬墓) 때처럼 똑같이 삼개월을 치렀다. 이때 공이 나이 71세로 몹시 여위고 병을 얻어 이듬해 10월 28일 공이 별세하니 처인(處仁)의 선친 묘 옆 사향(巳向) 언덕에 장사 지냈다.

공은 소년시절에 군자의 가문에서 공부하고 옛 성현의 학문을 익혔으며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고 형제간에 처신함이 모두 덕선(德善)의 모범이 되고 남들에게는 충애(忠愛)하고 독후(篤厚)하여 착한 일을 보면 권하고 허물을 알면 타이르며 스스로 엄하게 지켜 한번도 비굴하지 않고 늘 착하며 글읽기를 좋아하고 경학(經學)을 중히 여기고 항상 이렇게 말하였다.

『천지와 사물의 이치는 무궁하나 애 마음에 있고 광대하고 고명(高明)하나 배우지 않으면 밝지 못하니』 큰 의리에는 제도를 살피고 고금의 합당한 이치를 통한 뒤에야 세상일을 말할 수 있다. 공은 엄정하고 규칙이 있으며 말씀에는 예의가 있고 진퇴(進退)에는 의리가 있으며 일을 처리함에 법도가 있었으니 함께 베푼 이는 관찰사인 용주공(龍州公) 이파산(李坡山)과 작고한 종형 설옹(雪翁)으로 두어 분의 어진이 들이니 모두들 곧은 도로써 서로 잘 사귀고 공과 같은 반열이었다.

첫 부인은 서하 임씨(西河 任氏)이니 관찰사 내신(廩臣)의 손녀이고 자식이 없어 광주 노씨(光州 盧氏)를 둘째 부인으로 맞으니 영의정 수신(守愼)의 증손이다. 一男一女를 낳으니 아들 창징(昌徵)은 소시에 지극한 선행이 있었으나 불행하게 일찍 죽고 사위는 도사(都事)인 권상규(權尙規)이다. 또 서자인 창윤(昌潤)과 딸 넷이 있으니 하나는 이진겸(李震謙)의 처이고 셋은 군수 정하(鄭何)와 찰방 남두징(南斗徵)과 목사 이관(李慣)의 첩이다. 창징이 희비(義畵)를 낳았는데 또 일찍 죽었고 두 아들은 다 어리다. 명(銘)에 이르되 덕스러운 변명이 재화를 불러 왔고 덕성의 나아감이 충신에 엿보이네. 아! 확고하게 곧고 두터우며 순하네.

우의정 허목 찬

十七世祖 吏曹判書 清獻公 諱 宅賢 諡狀 ⑦

을묘년(1735년)에 왕세자가 탄생하자 바로 여러 재상(宰相)과 더불어 입대(入對)하여 원자의 호(號)를 정하는 것과 경사(慶事)를 반포(頒布)하는 것을 칭하고 난 뒤에 연이어 두 대신의 관작 복귀할 것을 아뢰니 임금이 비답을 내리지 않자 여러 재상을 만나보고 그 신원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진술(陳述)하였고 또 말하기를 신이 기유년(1729년) 입대(入對)하였을 적에 임금의 가르침이 친절하고 간절하여 모든 신하의 가르침이 될 것을 기대하였고 신도 마음속에 간직하지 지금 몇 해가 되었는데 임금의 마음이 전날과 같지 않으니 이것이 어찌 많은 부하를 속이는 귀취(歸趣)가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이 날 임금이 여러 천마디 교지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가 감히 다시는 이 일로 말하지 못하니 공이 더욱 조정에 있을 생각이 없어졌다.

여름에 경기감사로 나갔다가 병으로 그만두고 겨울에 강화유수(江華留守)로 나갔다가 병으로 그만두니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서만 벼슬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거늘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벼슬길에 나온지 40년에 일찍이 관작(官爵)의 거취(去就)로써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는데 지금 늙은 나이에 그만 두어야 하는데 그만두지 아니하여 이 같은 비웃음을 받으니 가히 부끄럽도다 하였다.

네댓 번 상소를 하여 비로소 벼슬길에서 물러났고 이

로부터는 비록 벼슬을 주어 불러도 긴급(緊要)하고 긴급하지 않음을 막론하고 일체 사양하였다. 11월에 계복(啓覆)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사형(死刑)을 받은 죄수를 재심함하는 일로써 임금이 부르니 공이 여러 아들을 돌아다보고 말하기를 내 병이 이와 같으니 죽고 사는 것을 알기 어렵고 임금의 얼굴을 뵈지 못하니 일년이 되어 한번 뵈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고 하룻밤을 재계하면서 지내고 입대(入對)하였다.

선달 초아랫날 신시(申時)에 정침(正寢)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매우 슬퍼하고 조회(朝會)를 폐하였으며 조상하고 제사지내는 절차를 의식(儀式)대로 하였고 이듬해 3월에 선영국내(先塋局內)에 임시로 장사지냈다가 공주 요당(公州蓼堂) 자좌원(子坐原)에 이장하였다. 공은 타고난 자질(資質)이 온아(溫雅)하고 재능과 도량이 많고 크며 겸손하고 온화한 얼굴빛이 밖으로 나타나고 곧고 확실한 지조가 안에서 독실하여 평생 지조와 행실에 법도를 잃지 아니하였다.

항상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녹봉(祿俸)이 봉양(奉養)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써 지극히 괴로워하여 어머니를 효성을 다하여 섬기고 어머니가 하고자하는 것을 먼저 헤드리고 받들어 순종하며 집을 백씨(伯氏)의 사는 곳 이웃에 두고 혼정신성(昏定晨省)하는데 편케 하며 형제들과 더불어 날마다 즐거워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을 힘썼다.

경술년(1730년)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니 늙은 나이로서 정성을 다하여 예제(禮制)를 행하는데 계유년 아버지 상을 당하였을 때와 같이하었다.

날이 춥거나 더위도 상복(喪服)을 벗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쉼 없이 곡하고 제사 지내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민망하게 생각하고 불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말질(未疾:고치기 어려운 병)이 일어날것이라 하여도 조금도 누우치지 아니하였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사모하는데 더욱 정성을 더하여 전에 하지 못하였던 것을 봉록(俸祿)을 덜고 재물을 절약하여 차례로 훌륭하게 만들었다.

벼슬길에 나가 임금을 섬기게되면 한 마음으로 근신(謹愼)하며 나라나 사회를 위하여 힘써 일하고 법을 지키는데 엄하며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정성을 잠시도 그치지 않으며 진퇴(進退)에 일찍이 말하기를 인신(人臣)의 도리는 마땅히 속이지도 아부하지도 않는 것으로써 정도(正道)를 삼아야 한다하였다.

상소(上疏)할 적에 절대로 칭찬하는 말을 하지않고 또한 정직한 체하여 명예를 구하지도 아니하여 늘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다만 도리로써 조용히 개진(開陳)하며 오직 임금의 허물이 없게 하고자 하였다 비록 시골에서 은거(隱居)하는 중이더라도 만약 조정에 과실(過失)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문을 닫고 눈썹을 찌푸리고 몇 일을 허를 차면서 탄식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二世祖 奉翊大夫公 (諱:晟) 事蹟

금봉산소 유적(錦峯山所 遺蹟)

都羅和山(지금은 雲住山이라 부른다)의 주산(主山)이 꺾이어 금봉산(金峯山 : 지금 사람은 북산루(北山樓)라 부름)의 아래 땅은 吳. 林. 金村이다. (지금 사람은 南東門등 땅에서 수변(水邊)에 이른다함) 건문(建文)三年 태종원년 辛巳(1401)에 전서공 휘 지백(之伯)이 처음으로 이 곳에 살았으므로 자손이 대대로 살게 되었고 장지(葬地)를 금봉산의 좌우 골짜기에 정하게 되었다.

전서공의 묘소는 처음에 옥녀봉(玉女峯) 亥坐에 있었더니 정통(正統)三年 世宗二十年(1438)년 五月 초三日에 음의 터가 옛 읍으로부터 이 곳으로 옮기게 되어 (그 때 군수는 韓大重) 전서공과 배위(配位) 貞夫人 李氏 두 분 묘소를 음의 서쪽으로 그리쯤 떨어진 사동(社洞) 癸坐原 (雲住山 左龍아래)에 이장하였고, 진용공(進勇公) 휘 언충(彦沖) 배위 平昌李氏와 어모공(禦侮公) 휘 경종(敬宗) 배위 영천동씨(榮川董氏) 네분의 묘소는 음을 설치할 때 임시로 평지에 묻어 옮기지 않고 그 후 절사(節祀)는 객사(客舍) 남쪽 침운루(瞻雲樓)위에서 바라보고 지냈다.

十二世孫 在寬(在寬). 상운(尙運)이 망제단비(望祭壇碑)를 전서공 묘소 동쪽 골짜기에 세우고 제사지냈다. 네분을 평지에 묻은 묘소는 우리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유언(遺言)에 이르기를 옥녀봉아래 공수간(公需間) 대장(大塙)밖 일곱 밭자국쯤 되는 동북면(東北邊)과 책실방(冊室房) 담장 서북(西北)밖 두 곳이 무덤 있는 곳으로 확실하다고 하였다.

봉익대부 심공 휘 성, 상호군 심공 휘 경, 양세 망단비(함경도 단천에 있음)

(奉翊大夫 沈公 諱 晟, 上護軍 沈公 諱 卿 兩世 望壇碑, 함경도, 端川)

시조 문림랑공 휘 홍부(洪孚)는 그 아들이 봉익대부 휘 성(晟)과 상호군 휘 경(卿)인데 이 二代는 숨어살며 세상을 멀리하여 전함이 없고 제사도 지낸지 오래였고 남북의 파가 변창하였으나 진실로 그 근본 같은 것을 잊고 다만 생각하는 것이 짐승과 같은지 오래 되었으므로 남북의 모든 일가가 서로 의지하여 세일사(歲一祀)를 행하는 것으로 몇몇한 것을 삼고 같이 비석을 세워 길이 사모하였으니 어찌 다만 무덤에서 춘추로 제사지내는 것만 이 또한 깊이 슬퍼하는 것이리오.

이에 제사를 지내기로 합의하니 스스로 정리(情理)가 맞아 우러러 바라봄에 엄숙하여 혼백이 있는것 같았다. 자손이 모두 모여 신주에게 빌었으니 추원(追遠)하는 정성을 어떻게 감히 싫어하였으리오.

단주읍지 등본(端州邑誌 謄本)

설치하고 변천하여온 내력 본래 吳. 임(林) 김촌(金村)은 오래 동안 여진(女眞)이 점거(占據) 하였더니

고려 예종(睿宗) 2년(1107)에 윤관(尹瓘)이 여진을 몰아내고 성을 쌓아 북주방어사(福州防禦使)를 두었고 예종4년(1109)에 성을 헐고 그 땅을 돌려주었고 여진이 망하자 원(元)나라가 독로원(禿魯元)이라 일컬었고 공민왕이 수복하였으며 신화(辛禍) 때 단주 안무사(按撫使)로 고쳤고 조선조 太祖7년 戊寅(1398)에 지단주사(知端州事)로 고쳤으며 太宗13년(1413)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군(郡)을 삼고 북청부(北靑府)의 진관(鎭管)이 되었고 숙종 庚子年(1720)에 부사(府使)로 승격시켜 독진(獨鎭)으로 중영(中營)과 길주방어사(吉州防禦使)를 구별하였으나 내용은 서로 같다.

※군명(郡名) 오(吳). 임(林). 김촌(金村). 독로원(禿魯元). 북주(福州). 단천(端川). 증산(甞山)

삼공신(三功臣)이 단천으로 살 곳을 정한 사실기록

(이 글은 모두 삼성(三姓)의 족보속에 있다).

태조대왕은 하늘의 뜻에 응하고 백성의 뜻에 순종하는 덕이 있었다. 太祖7년 戊寅(1398)년에 태조가 함흥에 들어갔을 때 우리 시조 휘 지백(之伯)과 안동군(安東君) 휘 김성부(金成富)가 같이 모시는데 힘썼고 임금이 환궁(還宮)할 때 뜻이 맞지 아니하여 슬프게 임금에게 절하고 떠나 오직 삼공신이 단천에 들어갔으니 때는 太宗元年(1401)년이였다. 옛말에 이르기를 마운령(摩雲嶺)을 넘을 때 멀리 山川에 살만한 곳을 점쳐 각각 정하였으니 운주산(雲住山)은 우리 할아버지의 점친 곳이며 영대봉(靈臺峯)은 즉 안동군(安東君)의 점친 곳이며 탑평산(塔坪山)은 또한 화의군(和義君)의 점친곳이니 이로부터는 자손이 대대로 사는 곳이 같은 군내에서 이어서 살고 변창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이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으로 영원한 두터운 정의(情誼)가 아니리오!. 아아 아름답도다.

청송심씨 보소통문(靑松沈氏 譜所 通文)

(단천 입북시조 전서공 제향 전(田) 토지대장등본)

다음과 같이 통고합니다. 씨족에게 족보가 있는 것은 조상을 숭상하고 가깝고 먼 일가를 막론하고 화합하는 길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여기에 혹 소홀함이 있으면 한 조상에서 나왔으나 길가는 사람과 같은 것이니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일가들이 족보를 한 지 지금까지四十여년이나 되었다. 낡아서 자라고 늙어서 죽는 것이지만 족보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옛 족보에 이어 다시 닦는 것이 어찌 우리 일가의 오늘날 급한일이 아니겠는가. 이로써 서울 宗中에서 회의를 한 뒤 즉시 경향(京鄕)의 여러 종중에 중간(重刊)할 것을 통고하여 여러 파의 단자(單子)가 이미 모두 도착하였으나, 관북(關北)의 여러 파는 본시 文林郎 제2子 봉익대부 휘 성(晟) 제2子 상호군 휘 경(卿)의 子 지포(之浦) 지백(之伯)형제는 영락(永樂) 己亥年(1419)에 입북(入北)한 파계가 분명하나 그동안 수차의 수보시(修譜時) 길이 멀다하여 단자가 늘 족보를 발간한 뒤에 도착하였으므로 원보(原譜)에 들어가지 못하여 일가간에 화합하는 일이 도리어 평등한 대

우를 받지 못하는 한탄이 있었으니 여러 일가들께서는 속히 수단을 보내어 후회하는 폐단이 없게 하심이 어떨겠습니까. 범례는 조목별로 왼쪽에 기록하였으니 여러 일가께서는 이로써 양지(諒知)하시고 보신 뒤에 같은 도의 종중에 전하여 보게 하고 알지 못하여 못하였다는 한탄이 없게 하여주시오.

癸酉年(1873) 六月 일 (1873년) 발통유사(發通有司) 참판 순택(舜澤), 석사(碩士) 후택(厚澤), 판서 승택(承澤), 부사(府使) 의현(宜絢), 군수의명(宜明), 참봉 능원(能瑗), 승지 동신(東臣),

貴派는 봉익대부 派이므로 本派 자손에서 별도로 유사를 정하여 이 통문을 내려보내 전달한 뒤 派系가 비록 같지 않더라도 만약 한 고을에서 살고 성과 관향이 같으면 이 통문을 사람을 시켜 보여주고 반드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더욱 동파이면 마땅히 속히 보여주시오. 만약 가까운 일가가 타향에서 살고있어 같이 이 통문을 보지 못하게되면 또한 인편에 뉘워 수단을 속히 보내시오.

甲子年(1864) 9월 일

발통유사(發通有司) 순택(舜澤), 승택(承澤), 의현(宜絢) 의명(宜明), 동신(東臣)

다음과 같이 통고합니다. 씨족에게 족보가 있는 것은 가깝고 멀고 간에 화합하는 길이요 우리 일가가 청송으로 본관을 삼은 사람은 분파(分派)가 다르고 후손이 탐탁히 여기지 않아 서로 멀리 하여도 우리 조상으로부터 보면 한 근원의 물과 같은 뿌리의 나무가 아님이 없습니다. 중엽(中葉)이래로 족보를 여러 번 발간하였으나 시골의 자손과 귀족(貴族)의 자손은 멀리서 살아 증험할 수 없음으로 간혹 누보된 사람이 있어 일가간에 화복하는 정의(情誼)에 진실로 흠절(欠節)이 있거나 족보에 들어 올만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살았거나 죽었거나 어찌 원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지금 족보를 하는 날에 다시 수단을 모아 派系와 文蹟에 증거 할만한 것이 있으면 종중에서 충분히 토의하여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대개 지극한 정은 있으나 부득이한 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임진보(壬辰譜)를 상고하여보면 저 종중이 문림랑공 제2子 봉익대부 휘 성(晟) 제2子 상호군 휘 경(卿)의 아들 전서(典書)는 휘 之伯의 후손이라고 명백히 실려있으나 지금 족보의 일을 반이나 하였으며 저 종중의 수단과 명하전은 도무지 도착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길이 멀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그럴 것입니다. 통문이 도착하면 지체 없이 만들어 유사가 가지고 올라와 누보(漏譜)되어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다행이겠나이다

무인년(戊寅: 1878) 十一月 일.

도유사 판서 순택(舜澤), 교정유사 진사 동악(東岳), 석사 의빈(宜彬), 진신유사(縉紳有司), 승지 동신(東臣), 승지 동헌(東獻), 부사(府使) 영경(英慶), 정언(正言) 진규(鎭圭), 감역 능숙(能肅), 참판 의원(宜元), 동돈녕(同敦寧) 의명(宜明), 부사 의현(宜絢), 판서 승택(承澤), 참판 이택(履澤), 승지 상목(相穆), 교리 상열(相說), 교리 상학(相學), 한림(翰林)상만(相萬), 직각(直閣) 상훈(相薰).

<다음호에 계속...>

대동세보(경진보) 신청안내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족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동세보: 전 12권(수권1권, 자손록 10권, 색인1권)과 CD롬(대동세보 전 내용과시조~ 4세조 산소 동영상을 수록하였으며 모든 한자에 음 표기함)

○보급가격: 22만원(CD롬 포함)
CD롬2개 별도 구입시: 20,000원
수권 별도 구입시: 40,000원

○송금구좌: 농협 084-01-179314 심명구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종회(02-2267-7857, 팩스: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부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종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논 판

◇현대 가정예절과 미래사회의 기대◇

2003년 3월 40호에서 계속

5. [격몽요결(擊蒙要訣)]을 통해 보는 실천예절



대종회 이사
沈星求

3) 독서(讀書)

배우는 자가 이미 선비의 행동으로 몸을 거두어 지킨다면 모름지기 독서와 강학(講學)으로 의리를 밝힌 연후라야 학문에 나아가는 길에서 향하는 바가 혼미하지 아니할 것이다.

강설 : 스승을 좇아 학업을 배우되 배움은 넓어야 하고 질문은 자세해야 하며 생각은 조심스러워야하고 매사 분별은 명확해야 한다. 반드시 마음으로 터득하기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매번 글 읽을 때에는 반드시 얼굴을 정숙하게 하고, 단정히 앉아서 마음과 뜻을 전치(專致)하게 하여 한 가지 글이 이미 익은 다음에 비로서 다른 글을 읽을 것이요, 널리 보기만 힘쓰지 말아야 하고 사실을 억지로 외우려들지 말아야 한다.

글 읽는 순서는 [小學]을 먼저 배워 그 근본을 배양하고, 다음에는 [大學]과 [근사록(近思錄)]으로 그 규모를 정하고 그 다음에는 [論語], [孟子], [중용(中庸)] 순서로 익혀야 한다. 그리고 오경(五經)을 읽고, 그 사이에 [史記] 및 선현의 性理書를 읽어 의취(意趣)를 넓히고 식견을 정밀하게 할 것이며, 성인이 짓지 않은 글은 읽지 말고 무익한 글은 보지 말아야 한다. 글 읽고 난 여가에는 때때로 기예(技藝)를 익히되 예를 들면 거문고 타기, 활쏘기 연습, 투호 등이다. 이들 또한 모두 의구(儀矩)가 있으니 때가 아니거든 놀지 말고, 장기, 바둑 등 잡된 놀이는 결코 눈에 붙여서 실제의 공부에 방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4) 신언(慎言)

배우는 자가 선비의 행동을 닮으려면 모름지기 기분을 삼가야 한다.

강설 : 사람의 과실은 언어로부터 오는 것이 많으니, 말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게 하되 때맞추어 말하고, 긍정이나 허락을 무겁게 생각해야 하고, 목소리를 조용하고 엄숙하게 하며 희롱과 해학이나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야 한다. 다만 문자와 이치에 유익한 말만하고 허황된 귀신의 이야기나 거리의 상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5) 존심(存心)

배우는 자가 몸을 닮으려 함에, 반드시 안으로 마음을 바

로 가려서 外物의 유혹을 받지 않은 연후에야 마음이 태연하여 여러 가지 사악함이 물러나서, 바야흐로 충실한 덕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강설 : 그러므로 배우는 자는 먼저 마땅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앉아서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조용한 가운데에 흐트러지지도 않고, 사리에 어렵게 되지도 않음으로써, 근본을 세워야 한다.

만약에 一念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선악의 기미를 살펴, 그것이 좋일 때에는 그 義理를 깊이 연구하고 그것이 뉘일 때에는 그 싹을 잘라 버려 마음을 양성함과 살림에 노력이 끊이지 않으면 동정(動靜)과 운위(云爲)의 義理와 당연한 법칙에 맞지 않은 것이 없게 될 것이다.

6) 사친(事親)

부모에 대하여 효도라는 요령을 가르치고 있다.

강설 : 행실에 효도와 우애가 근본이요, 죄목 3,000가지에 불효가 제일 큰 것이다. 아버지를 섬기는 이는 반드시 평소에서도 그 공경을 다하여 어른의 명을 순순히 좇는 예를 다하고 받들어 모심에는 그 즐거움을 다하여 음식의 봉양을 다하고, 병환에는 극진한 근심으로 의약의 처방을 다하고, 상사(喪事)에는 지극한 슬픔으로 마지막 이별의 道를 다할 것이요, 제사(祭祀)의 행사에는 엄숙함으로 멀리 추원의 성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겨울에는 따스하게 해 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드리며, 아침저녁으로 보살피고 드림과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알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뵈옵는 것을 모두 성인의 교훈을 좇지 않음이 없게 하고, 만일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성의를 다하여 가볍게 간하고 말리어 점차로 도리로 비유하며, 스스로 내 몸을 돌아보아 불미한 행동이 없이 할 것이며, 시종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아야 비로소 능히 아버지를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7) 사사(事師)

배우는 자가 성심으로 도에 지향한다면 모름지기 먼저 스승 섬기는 도리를 높여야 한다.

강설 : 사람은 세상에 태어났으면 섬기기를 같이하는 것이니 어찌 마음을 다하지 않으랴?

함께 살게 되면 새벽과 저녁에 참알(參謁)하고, 따로 살게 되면 공부 배울 때에 뵈옵고 초하루 보름에 모두 만날 때에는 두 번 절하는 예로써 뵈옵고, 평상시 모셔 받들에 존경을 다하고 가르침을 돈독히 하고 믿음직스럽게 해서 복종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말씀과 행하는 일에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는 모름지기 조용히 질문하여 그 득실을 분별할 것이요, 자기의 私見으로서 바르게 여겨 마구 스승을 비난하지 말며, 또는 옳은 도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스승의 말만을 믿어서도 옳지 못한 것이다.

봉양에 대해서는 힘에 따라 성의를 지극히 하여 제자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沈영감 심민섭



송금안내

찬조금 또는 홍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 농협 084-12-055823
(을지로4가지점) 대종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 홍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회계로 독립 재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 대종회
전화: (02)2267-7857

청송시조묘소연락처

유사 상국 011-554-1313
원택 011-9355-3608

알림

派(地域)宗會旗製作申請

今年부터 우리門中の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각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회기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종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 기존의 종회기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青松沈氏大宗會(02-2267-7857)

| | | |
|------|--|----------|
| 宗會名 | 青松沈氏 | 宗會 |
| 住所 | | |
| 電話番號 | 宅: - - | 휴대폰: - - |
| 신청내용 | 종회기(깃대 포함) : 180,000원 종회기(깃대 제외) : 150,000원 | |

理監總會顧問
指導委員
事事務長問
.....

洪宜完雲能能
澤根澤澤珏冬
裕興澤
潤澤
寬澤

青松沈氏左議政公宗會
任員改選

宗 事 消 息

始祖(諱:洪孚)秋享奉行

10월 30일(음: 9월 9일)



▶시조산소

始祖 妣位
 初獻: 相伯(青松) 相伯(青松)
 亞獻: 贊求(대중회부회장) 英求(울산)
 終獻: 相龍(안효공부회장) 承旭(봉화)
 執禮: 琬澤(青松) 大祝: 宜亮(青松)
 執事: 相培 弘燮 相守 圭煥 相國 相燾
 中臺山所 獻官: 奎澤

▶祭需費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奉化宗會 100,000 都摠制公宗會 200,000
 贊求(大宗會副會長) 200,000

二世祖 閣門祇候公(諱:淵)秋享奉行

11월 1일(음: 9월 11일)



▶함열 남당산 산소

閣門祇候公 妣位
 初獻: 相泳 相泳
 亞獻: 一重 相燾(青松)
 終獻: 愚寬 原重
 執禮: 相稷 大祝: 揆燦
 執事: 相國 載澈 相中 昌燮

▶祭需費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군산임파죄승지공중회 100,000
 谷城宗會副會長 100,000 대전·충남지구중회 100,000
 蔚山內禁衛公宗會 200,000 도충제공중회 100,000
 青松宗會 100,000

二世祖 奉翊公(諱:晟)秋享奉行

11월 15일(음: 9월 25일)



▶철원 양지리

奉翊公 判書公 典書公
 初獻: 相郁 周澤 東活
 亞獻: 鍾赫 宜說 學俊
 終獻: 裕澤 相允 峻夏
 執禮: 相稷 大祝: 相夏

三世祖 青華府院君(諱:龍)秋享奉行

11월 3일(음: 9월 13일)



▶청화부원군 산소

青華府院君 配位 金氏
 初獻: 庚周 光澤
 亞獻: 玄根 昌根
 終獻: 宜在 相直
 執禮: 相稷
 大祝: 光澤 相旭
 執事: 相鶴 載澈

▶祭需費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奎澤(남가좌동) 100,000

四世祖 青城伯(諱:德符)秋享奉行

11월 5일(음: 9월 15일)



▶청성백 산소

青城伯 配位 仁川門氏
 初獻: 斗燮 贊求
 亞獻: 敏燮 相郁
 終獻: 相穆 星求
 執禮: 相稷 大祝: 相直
 執事: 載澈 載求

▶祭需費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贊求(大宗會副會長) 100,000
 亨求(서울) 100,000 鐵原宗會 100,000
 都摠制公宗會 100,000 春川信川公宗會 100,000
 大田·忠南宗會 100,000

四世祖 初配位 淸州宋氏 秋享奉行

11월 7일(음: 9월 17일)



▶청주송씨 산소

初配位 都摠制公
 初獻: 相殷 相龍
 亞獻: 中來 宗燮
 終獻: 相國(青松) 琦燮
 執禮: 相昊 大祝: 玄根

▶祭需費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都摠制公宗會 200,000
 青松宗會 100,000 奎澤(남가좌동) 100,000

五世祖 仁壽府尹公(諱:澄)秋享奉行

11월 7일(음: 9월 17일)



初獻: 晶求 亞獻: 載求 終獻: 文植
 執禮: 載冕 大祝: 哲植 執事: 載澈

▶祭需費獻誠金

蔚山內禁衛宗會 200,000원

六世祖 良惠公(諱:石雋)秋享奉行

11월 10일(음: 9월 20일)



良惠公 配位 滄州公(諱:之漢)
 初獻: 贊求 載求 大燮
 亞獻: 相華 元植 仁燮
 終獻: 揆玓 愚夏 愚成
 執禮: 載冕 大祝: 相直

▶祭需費獻誠金

蔚山內禁衛宗會 200,000원

七世祖 忘世亭公(諱:璿)秋享奉行

11월 13일(음: 9월 23일)



忘世亭公 配位 八世祖兵使公(諱:安仁)
 初獻: 晶求 晶求 載求
 亞獻: 贊求 求亨 元植
 終獻: 鴻植 愚永 廣植
 執禮: 載冕 大祝: 相直

▶祭需費獻誠金

贊求(仁壽府尹公宗會副會長) 200,000원

五世祖 安孝公(諱:溫)仲秋節祀 奉行

10월 6일(음:8월 15일) 秋夕 오후 1시



▶수원 이의동 산의실

初獻: 魚澤 亞獻: 應鎮 終獻: 種福
大祝: 寬鎮 執禮: 相稷
執事: 찬수 언촌 상오 언선

五世祖 安孝公妣位 三韓國大夫人 秋享奉行

11월 4일(음:9월 14일)



▶안성 오흥리 능말

初獻: 庚周 亞獻: 相龍 終獻: 彦宰
執禮: 相稷 大祝: 光澤 執事: 載澤 載殷

六世祖 領中樞公(諱:溶)秋享奉行

11월 21일(음:10월 1일)



▶수원 이의동

考位 妣位 同知中樞公
初獻: 爽鎮 享鎮 興鎮
亞獻: 相德 相變 奎澤
終獻: 敏玉 明植 毅根
執禮: 相稷 大祝 寬鎮
執事: 載澈應植 彦村 雄鎮
▶祭需費獻誠金: 奎澤 100,000원

七世祖 漢城判官公(諱:湍)秋享奉行

11월 19일(음:9월 끝 일요일)



▶약산 청심재

判官公 衿川公 修撰公 都事公 監司公 長水公
初獻: 達變 達變 達變 達變 형무 형무
亞獻: 仲根 仲根 仲根 仲根 중복 중복
終獻: 相弼 相弼 相弼 相弼 한식 한식
大祝: 容圭

七世祖 內資寺判官公(諱:浚)秋享奉行

11월 26일(음:10월 첫째일요일)



初獻: 相烈 亞獻: 百變(서울) 終獻: 相九(과주)
執禮: 相直 大祝: 弘變(信川公派 總務)
執事: 相鶴 仁變
* 八世祖 敦寧府都政公(諱:順道)
* 九世祖 贈 戶曹參議公(諱:巨源)

八世祖 舍人公(諱:順門)秋享奉行

2006년 11월 9일(음:9월 19일)



舍人公 忠惠公 翼孝公
初獻: 昌燮 光澤 學燮
亞獻: 相勳 明燮 燦燮
終獻: 상우 榮燮 愚夏
執禮: 容圭 大祝: 相直
執事: 載澈 相鶴
▶祭需費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忠翼公宗會 100,000
元燮(김포) 100,000 光澤(부회장) 100,000
學燮(통진) 100,000 燦燮(통진) 100,000
金浦宗會 50,000 영섭(김포) 50,000

九世祖 曉窓公(諱:逢源)秋享奉行

11월 21일(음:10월 1일)



曉窓公 正言公 一松公 僉正公
初獻: 相昊 相昊 相昊 相昊
亞獻: 成來 成來 成來 成來
終獻: 昌圭 昌圭 昌圭 昌圭
執禮: 容圭 大祝: 承龍

九世祖 左議政公(諱:通源)秋享奉享

11월 30일(음:10월 10일)



初獻: 宜鶴 亞獻: 能心 終獻: 宜英
執禮: 容圭 大祝: 宜英
執事: 宜南 洪燮 載澈

11世祖 信川公(諱:孝謙)秋享奉行

11월 29일(음:10월 9일)



初獻: 元輔 元輔 元輔
亞獻: 清澤 鍾赫 胤燮
終獻: 相直 昌燮 在弼
執禮: 容圭 大祝: 相弘
執事: 石輔 仁輔

12世祖 肅川公(諱:宗忱)秋享奉行

11월 15일(음:9월 25일)



肅川公 監役公 晚沙相公 青平都尉
初獻: 暎求 暎求 暎求 求亨
亞獻: 贊求 贊求 贊求 基成
終獻: 載求 載求 載求 大植
執禮: 載冕 大祝: 相直 執事: 容圭 載澈

五世祖 靑原君(諱:淙)秋享奉行

11월 29일(음:10월 8일)



獻官: 奎澤
▶祭需費獻誠金: 100,000원

康主簿公(恭肅公養父)秋享奉行

11월 11일(음:9월 21일)



主簿公 配位
初獻: 相稷 相稷
亞獻: 李浩東 載洪
終獻: 相鶴 百燮
執禮: 容圭 大祝: 相直 執事: 洪燮 載澈
▶祭需費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奎澤(남가좌동) 100,000
德水李氏玉山公宗會 50,000

광 작

■ 심갑보(三益 THK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



부회장 심갑보

독립정신

필자는 지난 날 한 때 할아버지를 많이 원망한 적이 있었다. 양친이 객지에 나가 생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필자는 유년 시절을 조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가문의 9대 종손인 필자는 9살이 되어서야 초등학교에 입학할 하게 되었는데 취학연령의 경과로 입학이 보류되어 입학이 6개월이나 더 늦어졌고, 또 한학자(漢學者)였던 할아버지는 종손인 필자에게 천자문조차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초등학교 입학 전(前) 목에 종기가 난 어린 나를 10리나 떨어진 삼랑진 역전의 병원까지 혼자 보내어 수술을 받고 오게 한 일 등이 필자가 할아버지를 원망하게 된 동기였다.

그러나 필자는 인생의 큰 전환을 겪으면서, 할아버지의 손자에 대한 외견상의 무관심이 또 하나의 큰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즉 30대 초반 무렵 필자는 건설업을 하시던 부친이 62세의 한창연세에 별세하십시오

로써 유년시절부터의 꿈이었던 학자의 길을 접고 원치 않던 사업가의 길로 들어서며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엔 되렸어야 할 나이인 필자는 36년째(CEO로서 25년) 증권기업에서 전문경영인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사관련 각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모교에서 겸임교수로 2년간 학생들을 지도한 바도 있다.

이제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할아버지가 종손인 본인을 초등학교도 늦게 보냈고 한문 한 글자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집안의 종손으로서의 긍지를 심어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전에 10리 길이나 되는 병원을 혼자 다녀오게 하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혼자 기차를 타고 삼랑진에서 대구까지 가서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고 진학을 하게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독립심을 길러주셨기에 가능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부친이 작고한 후에도 이러한 독립정신이 밑거름이 되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었다.

눈을 돌려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보자. 1945년 해방 직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연평균 6.9%씩 성장하여 60년 만에 총생산 세계 제11위의 민주국가가 되었다.

뿐만 아니고 UN이 아니었으면 공산화를 막을 수 없었던 힘없고 가난하였던 우리나라가 UN사무총장까지 배출하는 중진국으로 성장하였다.

우리가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를 보낸 1963년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한국이 79달러, 필리핀 170달러, 태국 260달러였다. 그러나 작년(2005년)의 1인당 국내

총생산액(GDP)은 한국이 1만6천307달러, 필리핀 1천167달러, 태국 2천659달러였다. 세계 최빈국의 대한민국이 불과 60여년 만에 중진국 수준의 민주국가로 성장한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첫째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의무 교육제도를 받아들여 단기간 내에 70%가 넘는 문맹(文盲)을 퇴치한 것도 성장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성장을 주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중합제철 그리고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밖에 기업인들의 활발한 산업 활동과 근로자들의 희생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경제대국의 기반을 다진 대한민국사(大韓民國史)를 마치 잘못된 어두운 역사인 것처럼 매도하기에 바쁘다. 80%의 장점은 모두 덮어두고 20%의 잘못된 점만 부각시킨 결과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오늘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선배세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선배들이 가꿔놓은 열매만 따먹는 못난 조상이 되지 말고 후손들을 위해 다시 씨를 뿌리고, 꽃을 심고, 물을 주며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하는 오늘의 세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대신 그 정신을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심갑보 삼익THK주식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原州文化行事 江原監營祭



지난 10월 14일 午後2時부터 7時까지 5時間동안 江原監營祭 행사를 하였으며 全國各地에서 江原觀察使를 하신 總512名의 後孫들 1000여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그 행사는 관찰사의 임기동안 관찰사가 道内の 각 고을을 순찰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재연하는 행사였으며 관람객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우리 靑松沈氏도 관찰사를 하신 분이 7명이나 계셨다. 원주에서 우리 후손들도 10여명이 자랑스럽게 참여했으며 그 행사를 통해 李朝 500年 간에 관찰사의 권한과 순력(巡歷)을 알 수 있다. 감사는 도내에 있는 郡, 縣, 邑을 순력(巡歷)하면서 모든 政事를 관찰하고 감독 관리하면서 조정의 왕명(王命)이행하고 地方의 문제를 조정에 보고하고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감사의 전환과 기능>

道内の 行政, 軍事, 司法을 포괄한 道政전반을 관찰하고 守衛의 근무성적을 考課하여 褒貶(포상과 벌)을 상소하는 것)하는데 있다.

- ① 도내의 모든 창고에 보관된 穀을 감독하며
- ② 도민의 민생 안전과 流移民의 安集
- ③ 租稅, 貢賦의 수송, 農桑, 水利, 栽植등의 勤農事業
- ④ 도내의 人材養成과 地方教育 및 教化업무등을 겸임 하되 刑罰과 같은 司法문제와 軍政은 王命과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 稟啓 하거나 협의 처리한다.

관찰사의 위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우리 선조 들도 관찰사를 하시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으며 여기에 참여하신 각 관찰사의 후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흐뭇하였다.

앞으로 매년 行事가 있으니 우리 靑松沈氏 관찰사 後孫들도 많이 참석하여 관찰사의 위력을 한 번 보시고 후손들도 각성해서 보다 先祖의 뜻을 받들어 후손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와 민족 가문을 빛 낼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배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청송심씨 원주 횡성총회 회장 심정보

◆ 江原監營 歷代觀察使 靑松沈氏

- ① 267代: 仁祖15년(1637) 강원감사 沈 詒(12세조) 安孝公 감사공(友勝)
- ② 347代: 肅宗22년(1696) 강원감찰사 沈 栴(14세조) 安孝公 관관공(悌謙)
- ③ 373代: 肅宗41년(1715) 강원감찰사 沈宅賢(17세조) 安孝公 온양공(仁謙)
- ④ 400代: 英祖15년(1739) 강원감찰사 沈聖希(17세조) 安孝公 여주목사공(友正)
- ⑤ 410代: 英祖25년(1749) 강원감찰사 沈星鎭(18세조) 仁壽府尹公 안악공(光門)
- ⑥ 416代: 英祖33년(1757) 강원감찰사 沈 鑰(18세조) 安孝公 온양공(仁謙)
- ⑦ 443代: 正祖17년(1793) 강원감찰사 沈晉賢(17세조) 安孝公 관관공(悌謙)

그 날이 오면

심 훈 : 본명 심대섭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는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튀집혀 용솨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드리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덩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1930년 3월 1일 발표한 시 949년 한성도서 출간 시집 "그날이 오면"에서 본명은 대섭(大燮).

서울에서 태어나 경성제일고보 재학시 3·1운동에 참가하여 4개월 간 복역했다. 출옥 후 상해로 가서 원강(元江)대학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동아일보·조선일보·조선중앙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시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1925년 동아일보에 영화소설<탈출>의 연재를 계기로 영화계에 투신하여 영화촬영과 감독을 하기도 했다. 1934년까지 <동방의 여인>·<영원의 미소>·<직녀성>등 소설을 발표했고, 1935년에 대표작인 농촌계몽소설<상록수>를 발표하여 큰 각광을 받았다. 그 해 충청남도 당진에 상록학원을 설립하고 이듬해 9월 16일 별세했다.

祝 沈 銜 燮

(哲學博士 學位 取得)

沈相華氏의 長男 현섭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祝 合 格

제48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심강섭 심규방 심필선

訃 告

聖植(市長.郡守)氏 10月 19日 光州三星病院에서 宿患으로 別世

嗣子: 愚仁 愚根 愚勳
딸: 富孝 季孝 春孝 玉孝
사위: 柳永春 韓連植 金光浩 趙東湄
護喪: 鎮植

曜安(光州金堂山宗會 總務. 大宗會理事)氏 10月 7日 地病으로 別世

光燮(僉宗)氏 9月 25日 서울三星醫院 宿患으로 別世

嗣子: 영 칠 子婦: 인정주
딸: 심 영 사위: 노창호

宗洙(僉宗)氏 9月 25日 서울三星醫院 宿患으로 別世

嗣子: 지홍

文鎮(僉宗)氏 母親 全州崔氏 陰 9月 8日 午後6時 서울북지병원 宿患으로 別世

嗣子: 文鎮 勇鎮 仁鎮 光鎮 道鎮 厚鎮

12世祖 左承旨公(諱:淑)宗會 消息



▶ 軍山 임피 축산리 교동

水原市 이의동 산하에 계셨든 陽智公 監察公 양위 분 山所를 2006年 9月 3日 임피 축산리 교동으로 遷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退職教員 政府褒賞

- 청조근정훈장: 沈正愚 서울 남사초등학교 교장
- 황조근정훈장: 沈載鶴 충주 중앙초등학교 교사
- 홍조근정훈장: 沈春子 서울 금호초등학교 교사
- 沈大錫 재현 고등학교 교사
- 沈淸子 자양중학교 교사
- 沈相好 인천 서곶초등학교 교장
- 녹조근정훈장: 沈誠子 서울 윤중초등학교 교장
- 沈慶燮 문산중학교 교장
- 沈慶久 성균관대학교 교수
- 근 정 포 장: 沈載成 배재대학교 교수

人 事

允肇: 인천광역시 국제관계 자문대사
珍壽: 산업자원부 재정기획관실 서기관
昌來: YTN 마케팅국 사업팀장
輔均: 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장
재규: 농림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팀장
수화: 연합뉴스 부산지사(부장)
원목: 애경유지공업(애경백화점) 이사
상보: 수원애경유지역사·평택역사·ARD홀딩스 대표이사
周敎: KT 미디어본부 상무보
鉉秀: KT 비즈니스부문 상무보
이성: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 과장
根洙: 파라다이스산업 이사

誠金에 感謝합니다

宗 報 贊 助

| | | |
|---------|-----------|-----|
| 창용 | 30,000 | 榮州 |
| 상덕 | 50,000 | 槐山 |
| 종섭 | 30,000 | 洪城 |
| 의광 | 40,000 | 醴川 |
| 재익 | 50,000 | 光州 |
| 진열 | 50,000 | 光州 |
| 彦契 | 50,000 | 水原 |
| 相厚 | 50,000 | 安山 |
| 재호 | 30,000 | 驪州 |
| 光州斗岩宗會 | 1,000,000 | |
| 在錫 | 30,000 | 송과 |
| 相錦 | 30,000 | 青松 |
| 동섭 | 30,000 | 洪城 |
| 영보 | 20,000 | 쌍문동 |
| 左議政公宗會 | 400,000 | |
| 曉窓公宗會 | 200,000 | |
| 忠州監察公宗會 | 100,000 | |
| 文鎮 | 50,000 | 진위 |
| 원석 | 50,000 | 천안 |
| 應茂 | 20,000 | 인천 |
| 旭煥 | 20,000 | 인천 |
| 승길 | 30,000 | 밀양 |
| 부영 | 20,000 | 울산 |

理 事 會 費

| | | | |
|----|---------|------|-------|
| 永澤 | 50,000 | 2006 | 일산 |
| 仲根 | 50,000 | 2006 | 아산 |
| 在錫 | 50,000 | 2006 | 신천동 |
| 康燮 | 50,000 | 2006 | 김포 |
| 載冕 | 200,000 | 2006 | 대중회감사 |
| 春植 | 200,000 | 2006 | 대중회감사 |

誤字訂正

61호 상운 30,000원 三陟을 ▶ 東草로
61호 공학박사 현준 23世를 ▶ 24世로

파주 어린이 장학생 인천항만 견학

선광문화재단[設立者: (株) 鮮光 會長 沈明求]에서는 11월 2일 경기도 파주지역 어린이 장학생 58명을 초청하여 인천항만 견학행사를 가졌다.

2002년 3월 26일 설립된 선광문화재단은 인천 및 파주지역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매년 약 200여명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파주지역은 영의정을 지내신 만사 심지원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만사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인천 항만견학은 파주시 광탄면지역 3개 초등학교(신산.도마산.용미) 58명의 만사장학생을 초청하였다.

학생들은 자유공원(맥아더장군 동상 및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관), 차이나타운, 한중문화관 및 인천 문화유적지(영상으로 관람), 인천항만(위동항운의 카페리 승선, 갑문 방문, 내항버스타어), 선광컨테이너터미널을 견학하였다.

특히 이번 항만견학은 인천항만공사와 (주)선광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매년 견학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시조시인 심성보

기러기 포구(浦口)

| | |
|-----------------|-----------------|
| 백설(白雪)을 적수던 기러기 | 노을이 물든 갯바람 |
| 기럭 기럭 | 소매끝이 술술해라 |
| 슬픈 날개짓 | 사념(思念)은 이따금 |
| | 파래처럼 뜨는데 |
| 달무리 지는 서역(西域)으로 | 고깃배 고동소리에 |
| 구만리(九萬里) | 괘이 갈매기 우우 나네 |
| 외줄이 가네 | 월색(月色)은 하얗없는 낭만 |
| | 허공에 스치우는데 |
| 밤들을 잊은 창천(蒼天) | 선창은 만선(滿船)에 앉아 |
| 단꿈은 | 저문 밤이 북적거리네 |
| 어디에서 꾸리라더뇨 | 더불어 사는 목로의 등불 |
| | 먼 훗날 맛이 날 이야기 |

舍人公派宗會 臨時總會 開催公告

此時孟冬之際에 會員任들의 貴體萬安하시옵고 家內가 두루 平安하시옵시요

就悚 우리宗會는 지난 11월 24일 理事會議 議決에 따라 宗山에 對한 山訟을 再開하기로 하고 宗會員들로부터 募金 한 결과 現在까지 2,500萬 원이 거출되어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고 訟事에 着手하였습니다.

지난 여름에 宗家에서는 舍人公墓域 林野를 담보하여(總額 14億원) 대출을 해 가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어 서둘러 송사를 着手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臨時總會를 열고 會議錄을 作成해야 하는 일이 있어 임시총회를 開催코저 하였으나 이번이 마지막 總會라 생각하시고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會日時: 2006년 12월 21일, 午前 11시
場 所: 유림회관 內: 地層 傳統室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내)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4일

青松沈氏 舍人公派宗會
會長 沈永澤

貴下